

새정치, 광주 광산을 '새인물 등용' 여론 높다

천정배 전 의원 참여에 시민사회단체 '중진배제' 촉구

권은희 전 수사과장 전략공천설도... 선거인단 판단 주목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경선을 앞두고 '신진 등용', '중진 배제'에 대한 지역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4선 중진인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새정치민주연합 경선에 참여하자 일부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중진 배제'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여기에 권은희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전략공천설까지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광주 광산을 후보 경선은 '신인vs 중진' '출향인사 vs 지역토박이' 구도로 굳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당지도부의 결정과 경선 선거인단의 판단이 주목된다.

지난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4선의

원을 지낸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호남에서의 중진 배제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광주 광산구의회 전·현직 의원 20명은 지난 29일 성명서를 통해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후보는 새정치와 지역에 적합한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며 "컷오프에서 당의 중진은 '배제'하는 것이 이 지역민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25일에는 광산시민연대가 성명을 통해 "7·30 보궐선거를 통해 젊고 새로운 정치, 그리고 광주와 광산을 잘 아는 인물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되길 기대한다"며

다"며 "다선 중진의원들은 당연히 중앙정치 무대인 수도권에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과 맞서 싸워 당당히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당 소속 의원 30여 명은 3선의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 주도로 재·보선 공천 기준과 관련해 ▲전 지역 경선 ▲우세지역 중진 배제 등 2가지를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당 지도부의 '중진 배제'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 전 장관을 차출할 수도권 지역이 마땅히 없다는 점 때문이다.

반면, 천 전 장관은 이날 방송사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에서 수원지역 출마 요청이 있을 경우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는 뜻을 피력해 수도권 출마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당의 필요, 국민의 필요, 대한민국의 발전을 먼저 생각했다"면서 "어떤 것도 당 지도부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면서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선 후보 '1차 컷오프'를 하루 앞둔 시점인데다 경선일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천 전 장관의 수도권 출마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의 의혹을 폭로한 권은희 서울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전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의 사표가 30일 최종 수리되면서 서울 수도권과 함께 광산을 전략공천설도 정치권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로부터의 재보선 출마 요구가 거센데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그의 등판을 점치는 관측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 전 과장이 광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도 그의 거취를 주목하고 있다.

다만, 당내에서 영입 대상으로 거론은 됐지만 실제 추진으로 이어질지가 확실치 않은 상태여서 권 전 과장의 '전략공천설'은 단지 설(說)에 그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7·30 재보선 브리핑

기동민 "대중교통 노선 증설·광역급행버스 도입 절실"

기동민 새정치민주연합 광산을 예비 후보는 30일 "광주시 인구의 약 16%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광산을 지역의 대중교통 체계 미비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기회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서울 부시장의 노하우를 살려 대중교통노선 증설 및 광역급행버스 도입을 추진 하겠다"고 주장했다.

기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첨단·수원지구에서 구도심으로의 출·퇴근이 3시간 넘게 소요되고 있고, 광산을 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도 매우 부족

해 대기시간이 높아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수원 ~ 시청 ~ 터미널 ~ 구도심을 연계하는 광역급행 버스체계를 마련하고,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증설하고 BIS(Bus Information Service)를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높이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진 "박 대통령, 밀실 인사가 국민분열 화근"

김명진 새정치민주연합 광산을 예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대통합은 '구두선'에도 못미치는 '헛말'이라며 "밀실에서 한정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는 국민대통합이 아니라 국민 대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화근"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박 대통령의 인사와 관련, "과거 대통령 공약에 국민대통합을 내세웠으나 당선 이후 팽개친 지 오래고, 올해 초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

정목표로 설정했지만 연이은 총리 후보자의 사퇴와 사임 의사를 표명한 총리 유임이라는 '정상의 비정상화'가 자행되고 있다"면서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나선 김무성 의원마저 탄핵인사를 통한 국민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근우 "광주 광산을 지역 원로 30명 지지받아"

광산복지포럼 정동원 상임고문을 비롯한 첨단 정암학원 유은상 이사장 등 30여명의 지역 원로들이 이근우 새정치민주연합 광산을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이번 7·3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광주와 광산을 지켜온 새로운 정치인이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광주에서 법조인으로 생활하면서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 각종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광주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인물이고, 여러 예비후보를 중 광주를 가장 잘 알고 광산을 사랑하는 후보이다"며 지지 배경을 설명했다.



김한길 대표 모두 발언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출마 선언... "전남 동부 발전 10년 앞당기겠다"

순천·곡성 보선... "지역역점사업 예산확보 올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는 7·30 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곡성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수석은 30일 오전 순천만 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만일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이는 지역민에 의한 선거 혁명이고 호남발전과 정치발전에 대한 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호남 최초로 지역구도를 타파한 곳은 순천·곡성이어야 하며, 이 변화만이 지극지극한 지역구도를 깨뜨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고 호남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순천·곡성을 포함한 전남 동부권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의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축복

의 땅이다"며 "기회를 준다면 전남 동부권 발전을 적어도 10년 이상 앞당길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수석은 ▲순천대 의대 유치 ▲정원박람회장 국가정원 지정 ▲순천 구도심 재생 등 16개 순천시 역점사업과 ▲곡성 강소농 메카 육성 ▲삼전강 기자마을 등 테마관광지화 ▲석곡연구단지 조성 등 순천·곡성 지역의 역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온 힘을 기울여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30일 오전 순천만정원에서 7·30 보궐선거에 순천·곡성지역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박선원, 나주·화순 출마... "미래 지향적 지역발전 제시"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은 30일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2017년 정권창출의 당당한 주역이 되겠다"고 7·30 나주·화순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참사 등은 구태 정치인들에 의한 구태 정치가 이러한 국가적 비극을 잉태한 것"이라며 "국민들은 총체적인 정치권의 혁신과 개혁을 명령하고 있고, 정치권의 세대 교체와 각 분야 전문가들의 등장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그는 "경륜과 경험,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호남의 중심 나주·화순에서 변화와 개혁의 선두 주자가 되어 기존 정치판을 확보하고, 사람의 기본가치와 존엄성을 받들고 섬기는 새정치를 실현하겠다"면서 "특히 나주·화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주도형 산업육성에도 전문 능력을 발휘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5. 5월 준공예정

한빛타워 분양/임대 비교할수록! 따져볼수록!

위치 **가**격 **수**익성 **넘**버우원!

권/장/업/종

- 1층 금용권, 약국, 커피숍, 안경점, 24시 편의점 등
- 2층 인과, 가정의학과, 미용실, 대형매일리조트점 등
- 3층 소아과 내과, 치과 등
- 4층 각종학원 등
- 5층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 6층 보험회사, 각종사무실
- 7층
- 8층 스카이라운지, 대형웨트니스센터 등

나주혁신도시내 중심 상권 프리미엄 빌딩

한빛타워 투자포인트

- 투자의 안전성** 신탁회사(아시아신탁) 자금관리로 수분양자 보호
- 합리적인 분양가 실용적인 설계** 인근 상가빌딩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 높은 층고(4.2m~5.4m)로 인한 업종의 다양화 실현 전용률 극대화로 수분양자 이익실현(1층 66.9%, 2층~4층 71.44%)
- 뛰어난 접근성** 혁신도시 핵심상권에 위치하여 고객출입력이 우수한 프리미엄 상가 5층에 스카이가든을 조성하여 운동, 휴식공간으로 활용

매주 투자설명회(수요일 13:00, 토요일 14:00, 분양사무실)

주식회사 오 늘 솔로몬 공인중개사

061)333-7077
010-5587-3080

시행: 한빛가림(유) 책임시공사: 견해중합건설(주) 신탁사: 아시아신탁

한빛타워 분양사무실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 연구원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중양호수공원